

커피 한잔

윤 제 철(시인)

햇살 좋은 베란다에서
한 잔의 커피는
달팽이 기어가듯 느릿하게
커피 잔 그림자를 흘리며

일상의 부딪침으로 망가져
좁아진 시야를 넓혀주거나
닫아버린 감각의 문을 열어주고
뒤도 안보고 사라진다

좋다 나쁘다 말은 많아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연락 없이도 만나주는 친구
변덕스런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커피 잔 그림자를 보며 떠올린 시다. 마치 달팽이처럼 천천히 기어가듯 그렇게 천천히 맛으로 취하는 커피를 노래한다. 좁아진 시야를 넓히고 닫아버린 감각을 열어주고 두말 않고 사라진다. 그리고 건강에 좋으니 나쁘니 해도 개의치 않고 언제나 만나주는 친구다. 어디 이런 친구가 있는가, 언제든 편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대상을 매체로 삼고 나름 커피 예찬을 펼치게 한다.

詩人과 술

오 대 환(수필가)

카톡방 입장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은 나이 30에 술로 요절한 “댄디보이 박인환” 시인 이야기를 읽었다. 명동 ‘은성술집’에서 문우들과 취기에 흥이 올라 지은 시에 이진섭이 즉석에서 곡을 붙인 노래 “세월이 가면”이 탄생하게 되는 70여 년 전 사연이다. 카톡으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드는 얘기 중에 쓸만한 것들을 골라 소화한다면 아마도 박사가 되고도 남으리라.

요즘의 시인들은 거저먹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억은 컴퓨터가 대신해주고 사전도 컴 속에 들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딱 맞는 시어를 찾아 앞뒤로 밀어 넣고, 문법이 틀리면 빨간 밑줄을 그어 자동으로 알려 주니 옛 문인들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다. 그런데도 한 구절 한 마디에 가슴앓이할 때가 있으니 옛 시인들이야 오죽했으랴!

글을 쓰다 보면 정말 우연한 기회에 글이 찾아와 글이 되는 신기한 때도 있다. 하지만 한 구절에 발목 잡혀 며칠을 꼼짝 못 할 때도 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술자리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 실마리가 풀리거나 홀로 유유자적 산책하는 도중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에 돌파구가 열리기도 한다.

적당한 취기에 시제를 놓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짝 막힌 물꼬를 트는데 더 없이 좋은 기회다. 술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겐 한잔 술이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다. 물론 꼭지가 핵 돌아가면 헛일이지만 소재를 넓히고 주제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술이 가진 중독성이란 속성 때문에 그 한계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술이 인체에 흡수되면 어떤 작용으로 사람의 기분을 자극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생태학적으로 보면 극단적 조화라는 비밀이 숨어있다. 먹이사슬 최정점에 올라선 인간이 즐겨 마시는 기호식품 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微物), 발효 미생물의 배설물이다. 하늘로 머리 든 고귀한 존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의 분노를 마시고 흥을 돋우고 있다. 만약, 발효균이 인간과 대화한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 아이러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사전에서 발효(醱酵)의 의미를 찾아보면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지니고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유기물이 분해되어 알코올류, 유기산류, 탄산가스 따위가 발생하는 작용”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알코올(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간의 에너지대사 회로 TCA Cycle과 비교해 보면 신기하게도 작용하는 그 기작(機

作)과 효소가 모두 같다고 한다. 다만, 마지막 대사 산물이 인체에선 에너지가 생기고 발효에선 알코올이 생기는 차이뿐이란다. 결국 수십조 세포들의 에너지대사를 연계시켜 한 생명체로 만든 조물주의 신비로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미진중합 시방(一微塵中舍十方) 오묘한 우주의 수수께끼를 새삼 느끼게 한다.

우주에 떠돌던 지수화풍의 기(氣)가 어떤 인연이 닿아 한 생명체를 이루었던 유기질을 미생물의 입질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는 환원 과정이 발효인데 이때 생긴 당질분해(糖質分解)의 최종물질이 알코올(술)이다. 그러니 술은 체내에서 소화가 필요치 않다. 위에서부터 바로 흡수되는 즉효성이다. 혈류를 촉진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마약성 음료다. .

먹이사슬의 지존으로서 인간은 입으로는 사랑, 정의, 공정, 질서를 노래하고 있지만 뒷모습은 살상, 증오와 거짓, 불의의 화신이나 다름없다. 지존의 화신이 한낱 미물의 배설물에 매혹당하고 있다는 모순적 존재라는 사실을 술이 간증해주는 실체이기도 하다.

그 좁은 원고지 칸 칸에 글자를 메워가며 틀리면 지우고, 맘에 안 들어도 지우고, 지우다가 찢어버리고 오직 기억으로만 더듬어 주옥같은 한 구절을 찾아 날밤을 새우던 어둠던 시대의 육필 시인들 박인환, 천상병, 박목월, 김소월 ... 그들이 아무리 천재 시인이었을지라도 시마의 시달림으로부터 구원해주는 한 잔 술의 매력을 뿌리칠 수 없었으리라.

술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는 마법의 묘약이기도 하다. 평시에는 이성과 윤리, 상식의 틀에 갇혀 있던 생각들이 술의 효험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뜻밖의 채팅 능력을 발휘한다. 모르는 사람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달과 별이 유난히 아름답게 보여 난데없이 시적 감흥에 젖기도 한다.

남보다 앞선 영적 세상을 내다보고, 그 예민한 감성으로 이루지 못한 사랑과 자연의 벽간 송고함을 노래하며 천상을 넘나들던 시인들의 영혼은 이미 그 당시 활짝 열린 가상현실을 살아온 것이라니, 그들이 오래전에 이미 꿈꾸었던 미래를 현대 과학기술로 실현한 것이 Chat GPT 가상문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쨌거나 술은 감성 증진제임엔 틀림없다.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이미 오래된 채팅의 반려자다.

인류문화에 술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수많은 명시들을 생각해보면 시인과 술은 예사 인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AI 문명이 과연 시인들의 알코올 의존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눈부신 밝은 문명 불빛에 밀려 음풍농월의 풍류 조차 멀어지는 건 아닐까?